

시편 67편 묵상 -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구한 시인은 만방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개역	사역
1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셀라)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노래 1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2 그리하여 주님의 길이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이 모든 이방에 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3 하나님이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3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민족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4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4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니 주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이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5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민족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6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 리로다	6 땅이 그 소출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복 받는 것을 원합니다. 생활에서 어려운 것보다는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이라면 그 기쁨은 훨씬 커집니다. 물질적인 복이 영적인 복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생활의 경험에서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67편을 보면 복이라는 말이 1, 6, 7절에 세 차례나 나옵니다. 그리고 땅이 넉넉한 소출을 낸 것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라고 노래합니다(6절).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생활에서 경험하는 점에서 그것은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고 나면 어딘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았다’ 하는 데서 멈춘다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떤 부족을 느낍니다. 내가 경험한 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67편을 보면 처음 두 절과 마지막 두 절은 여호와와 복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말로 시작하고(1-2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6-7절). 여호와와 복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민족들이 모두 찬송하는 것입니다.¹⁾ 시인이 이야기하는 복은 개인적인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관련된 것임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심되는 내용일 것인데 바로 시의 중앙에 있는 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3절과 5절에서는 ‘민족들의 찬송’이 후렴구처럼 나오고 그 중앙에 있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²⁾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세상

1) 67편의 주요 단어를 보면, ‘민족들’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3-5절에 일곱 번 나오고, ‘땅’이 네 번(2, 4, 6, 7절), ‘모든/모두’이 네 번(2, 3, 5, 7절), ‘찬송’이 네 번(3절과 5절에 각 두 번씩), ‘복’이 세 번(1, 6, 7절) 사용되었다.

2) 67편의 이러한 구조를 들어서 성전에 있던 마노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노라에는 일곱 촛대가 좌우 대칭으로 있는데 1-7절의 단어 수가 그러한 구조를 정확히 나타낸다. 1절 - 7단어; 2절 - 6단어; 3절 - 6단어; 4절 - 11단어; 5절 - 6단어; 6절 - 6단어; 7절 - 7단어. 이렇게 4절이 시의 중앙에 있다.

의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함을 봅니다.

67편의 구조를 놓고서 우리는 시인이 노래하는 복이 온 세상에 이르는 것이고(1-2, 6-7절), 그것은 여호와께서 공평히 심판하시고 인도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면서 67편을 읽어 가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얼굴빛은 이방을 향합니다

1) 시인의 간구

- 1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셀라)
- 2 그리하여 주님의 길이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이 모든 이방에 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1절에서 세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됩니다. 첫째, 시인은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드리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67편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67편은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모든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만민이 찬송하는 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복은 은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시인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이어서 간구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됩니다. 그 빛을 자기 백성에게 비추어 주시면, 어둠에 있던 백성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는 사망에 떨어지게 되지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분의 백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서로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모양이 됩니다.

2절은 “그리하여”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얻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데, 그 내용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그들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을 향합니다. 이방 사람이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민족은 혹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포로로 잡아간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두 여호와의 길을 걷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참여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2) 아론 제사장이 선언한 복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얼굴빛으로 내려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데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복과 얼굴빛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복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언된 제사장의 복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24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 25 여호와와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26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67편에서 은혜, 복, 얼굴빛을 말하였는데 제사장이 선언하는 복에도 은혜와 복과 얼굴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이나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선언하신 복을 받았고, 그 내용을 다시 묵상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복이 시인의 간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우리는 67편의 간구가 더 풍성한 응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민수기 6장과 시편 67편은 중요한 점에서 연결되지만, 적용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작은 차이점도 생겨났습니다. 첫째, 민수기 6장에서는 제사장이 ‘너’(단수)에게 복을 선언하는 말이지만, 시편 67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으로 범위가 넓혀집니다. 모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 12:3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둘째, 민수기 6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가 사용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조금 더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성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민수기 6장에서는 ‘평강[샬롬]’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시편 67편에는 그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땅이 넉넉한 소출을 냈다고 노래하는 6절에 간접적으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심판과 인도를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 3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민족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 4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니
주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 5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민족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처음 두 절에서 모든 이방에 주님의 구원이 알려지기를 소원하였는데, 3-5절에서는 그 주제를 더 발전시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5절은 후렴구처럼 똑같고,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환호한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2절에서는 ‘이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3-5절에 ‘민족들, 모든 민족, 사람들, 민족들, 세상의 사람들, 민족들, 모든 민족’ 등처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이처럼 각 구절마다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3절과 5절의 후렴구에서 강조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찬송에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의 감정도 더 고양되고 더 절실하게 표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같은 말로 사람의 감정만을 자극하면 예배가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각각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두 사실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지적해내고 형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백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평한 심판’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심판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즐겁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 후에 ‘인도’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디로 향하여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주님께서 ‘여호와와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시 23:3, 6).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출 15:13)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인도하심에 관하여 기쁨과 환호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심판이 의로울 뿐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구원하신 백성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3. 땅의 모든 끝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6 땅이 그 소출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구하였는데, 6-7절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땅이 그 소출을 내었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를 놓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 주심은 영적인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 소출을 내는 것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주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그 ‘평강’은 ‘번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것도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좋은 예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자 땅은 그 소산을 내었고, 그분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더욱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풍년의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도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의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을 노래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약속의 땅이 복을 받아 소출을 많이 낸 것을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땅의 끝이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를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바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소원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물질적인 복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이 소산을 내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을 그려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땅은 엉성케와 가시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창 3:17-19),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없어진 세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창조의 본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4.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1) 이 시편의 출발점과 결론 - 하나님

67편은 주님의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넉넉한 추수를 보고서 감사하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 주심을 구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모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의 시작점과 종착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시의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는 가운데서도 시인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의롭게 재판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두 여호와의 경외하는 데에 이를 것을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구한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바르게 깨닫고 경외하는 데에 이르기만을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태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대비가 됩니다. 그는 넉넉한 추수를 놓고서 곡간을 지을 궁리를 하고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19)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요함 중에서도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넉넉한 추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바랐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 들어갈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르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땅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 나아갈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2)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시편

67편은 추수와 관련된 노래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과 추수’라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됩니다.³⁾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았고,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긴 아합 왕 시대에 그 땅에 3년 반의 기근을 겪은 일이나, 엘리사 시대에 7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한 것이 그 예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면 그 땅에 평안이 가득하고 소출도 많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7편으로 항상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저주 아래 있었던 시기에는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방 사람을 향하여 넓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1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5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2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21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스 8:11-13, 15, 20-22)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아왔습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온 것입니다(참조: 겔 34:27).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하여 67편을 읽으면 그 깊이를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가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67편은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는 찬송으로 끝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시편 2:8과 72:8에 나오는데, 2편과 72편은 모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에게 입을 맞추고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시편 2:11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67편이 메시아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67편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재판과 인도에 대한 말씀도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사 11:4; 미 4:3).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심판은 곧 열방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의로운 심판을 당하셨고, 그 결과로 얻으신 의를 자기 백성에게 입혀 주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시편 67편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삼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모든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28:18-20; 행 1:8).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친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3) 그리스도인의 시편

3) E. Talstra, “Psalms 67: Blessing, Harvest, and History,” *Calvin Theological Journal* 36 (2001), 310.

시편 67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려진 시편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구하였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출발점과 종착점 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합니다.

또한 땅이 넉넉한 소산을 내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될 때에도 늘어나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시 62:10),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시 62:12). 신령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 하도록 물질적인 복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생 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칫하면 그것을 자 기의 손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넉넉한 추수를 주셨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도 모두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심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라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복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7절의 복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다른 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 다 일컬으리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눅 1:47-49). 마리아의 이러한 겸 손한 기도는 온 세상에 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깁 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 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하나님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두 하나님과 관 련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세상은 하나 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좁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그들이 좁은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고 새로운 세계를 얻었습니다. 넉넉한 때에도, 자 기를 과시하는 세상 사람과 달리 더욱 주님의 은혜와 복과 얼굴빛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이 복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피어 나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2004년 9월 22일, 수요기도회)